

<사금갑>설화 연구

저자 (Authors)	강은혜
출처 (Source)	어문학 , 1996.2, 1-24(24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996.2, 1-24(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3192
APA Style	강은혜 (1996). <사금갑>설화 연구. 어문학, 1-2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3 11: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射琴匣〉 설화 연구

강 은 해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원조자·적대자 기능의 역사적 성격 |
| II. 세 개의 삽화 | 1. 까마귀·노옹·日官 |
| 1. 王의 행차와 정후 | 2. 거문고 갑 男女 |
| 2. 王과 日官의 수수께끼 해석 | IV. 이야기 구조의 呪術的 의미 |
| 3. 正月 烏忌日 祭儀 | V. 맺음말 |

I. 머리말

〈射琴匣〉은 삼국유사 권 1 紀異篇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 신앙의례의 흔적과 함께 서로 일치되기 어려운 모티프들의 연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문고 갑을 쓰다는 表題 모티프, 峯出池라는 뜻이 생기게된 연유, 그리고 정월 보름에 찰밥으로 제사를 지내고 정월 上子, 上午, 上亥일에 百事를 조심하는 연원이 이 한 편의 설화 속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설화 가운데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징후를 예시하고 그것에 대해 해석하고 나름대로 대응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있다. 다층의 이야기 가치(價値)를 탐색하고 있는 사금갑 설화도 역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의 조짐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연출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들은 두 계열군으로 나뉘어진다. 그 중 하나는 자연의 조짐을 多衆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한 경험적 인식에 의해 吉兆나凶兆로 판별하는 경

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의 전문가인 日官이 나서서吉凶을 해석하는 경우이다.

〈해성가〉가 출현하는 문맥에서 해성은 많은 사람에 의해 凶兆로 인식된다. 이런 경우 자연현상과 인간의 해석은 다중의 일상인들에게 보편적인 믿음의 체계인 俗信을 형성하는 단계를 이미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반해 〈도술가〉가 출현하는 문맥은 〈해성가〉의 경우와 다르다. 해가 들 나타난 현상에 대한 解號者는 또이 의뢰한 한 사람의 전문가 日官에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도술가〉의 배경징후와 해석과정은 俗信의 형성과는 다른 폐쇄적인 믿음의 회로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금갑〉은 이러한 두 계열군에서 후자의 해석체계에 포함되는 이야기이다. 왕의 행차에 나타난 까마귀와 말하는 쥐, 말 탄 병사, 돼지들의 싸움, 못속에서 솟아오른 노옹의 편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징후는 비밀상적인 기호들의 연속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오직 日官 한 사람의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 사람의 전문적 解號者, 日官에 의해 야기된 갈등이 해소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월 보름날 찰밥으로 제사하는 풍습의 유래를 말해주는 〈사금갑〉이야기의 解號의 기반은 어디에 두어져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의문은 난해한 이야기의 구성원리를 유기적으로 밝히는 데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작업은 정월 上子, 上午, 上亥日の 근신과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찰밥제사 의식의 민속적 원형을 재구하는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설화의 배경이 된 炤知王 무렵, 신라 사회의 특수한 믿음의 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의 구성원리를 밝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II. 세 개의 삽화

1. 王의 행차와 징후

〈사금갑〉이야기의 발단은 역사적 인물인 신라 제21대 毗處王이 天泉亭에 행차하는 사건으로 인해 비롯된다. 이야기의 서두는 이미 이후의 서사전개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끌려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축을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천천정으로 행차한 王은 곧장 비밀상적인 조짐과 만나게 된다. 왕 앞에는 까마귀와 쥐가 나타나고 쥐는 사람의 말로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살피라.”고 당부한다. 왕이 말 탄 병사를 시켜 까마귀를 뒤쫓게 했더니 말 탄 병사는 남쪽 避村에 이르러 두 마리 돼지의 싸움을 구경하다가 따르던 까마귀를 놓친다. 말 탄 병사가 난국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한 노옹이 못에서 나와 글을 바쳤는데, 그 글봉에는 “폐어 보던 두 사람이 죽고 폐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수수께끼가 담겨 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왕의 행차와 관련한 징후를 병치시켜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징후는 혜성이 떨어지거나 해가 가리거나 달이 가리워지는 등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전해주는 자연스러운 傳畵의 체계와는 그 기반이 같지 않다.

왕의 행차에 때 맞추어 나타난 까마귀와 쥐, 말탄 병사, 두 돼지, 노옹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징후는 자연이 스스로 인간에게 환기하는 기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혜성의 출현은 자연이 인간에게 던져준 수수께끼이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받은 인간들은 혜성을 지어 부르면서 인간 속에 자연을 내재화시키고 해결을 도모한다.

그에 비해 비처왕의 행차와 병치된 징후들은 자연현상과 관련된 필연적인 믿음으로부터 빚어진 것이 아니다. 징후들은 인간이 주도하는 작위성 쪽으로 더 깊게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사금갑〉의 징후는 오히려 인간 쪽에서 자연을 향해 문제를 던지고 그 해결의 단서를 자연에서 이끌고 들어와 해결을 도모하는 양식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일종의 占卜행위에 가깝다.

그렇다면 비처왕의 행차와 그에 관련한 정후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은 곧 정후를 산출해 낸 의식의 저변인 기호규범(code)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IV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코자 한다.

2. 王과 日官의 수수께끼 해석

이야기의 두 번째 삽화는 王과 日官의 수수께끼 풀이와 왕의 대응 행위로 연결된다. 왕은 글의 걸봉에 제시된 수수께끼를 일상적인 인간의 정서로 파악한다.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 떼어보지 않아서 한 사람만 죽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왕의 이러한 해석은 日官에 의해 곧 誤讀으로 판별된다.

日官이 아뢰기를

“두 사람이란 서민을 말하는 것이요, 한 사람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日官은 왕의 사유체계를 넘어서 있는 인물로 드러난다. 日官은 하나의 정후를 왕과는 완전히 다른 기호규범의 체계에 의지해서 해석해 내고 그 해석이 正讀이라는 것이 곧 이어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日官은 어떤 존재이며, 그의 판독능력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일관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의문은 III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日官의 해독 이후 왕은 걸봉을 열고 “거문고 감을 쏘라”는 지시내용을 따른다. 곧장 궁중에 들어가 거문고감을 쏘는 왕에게서 더 이상의 회의는 발견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왕이 직접 활을 쏜다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화살을 쏘는 행위가 왕에게만 부여된 고유의 영역임을 환기시켜 준다. 또한 화살을 쏘고난 뒤 일어난 결과는 왕이 몸소 험한 일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던 필연성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문고 안에서 私通하고 있는 焚修僧과 篋主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적대 세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분수승과 궁주는 왜 왕을 해치려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단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왕의 목숨을 노렸던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뒤이어 계속되는 세 번째의 삽화에 의해 부정된다.

3. 正月 烏忌日 祭儀

이야기의 세 번째 삽화는 정월에 치러지는 나라의 풍속으로 연결된다. 매년 정월 첫째 亥日, 첫째 子日, 첫째 午日에 모든 일을 삼가하고 보름날에 烏忌日찰밥 제사를 지내며 슬퍼하고 삼가하는 유래가 삽화Ⅰ과 삽화Ⅱ의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나라사람 모두가 시행하는 슬픔과 금기의 惻怛 행사가 궁중 안의 단순한 불륜만을 경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일까.

이 사건으로부터 빚어진 烏忌日 달도 의식의 규모와 매년 정월 통과의례로 고정되어버린 제사의 성격을 생각하면 거문고감의 남녀는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될 수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實體는 무엇인가. 분수승과 궁주는 私戀에 빠진 남녀를 넘어서 왕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의 집단적 성격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들 남녀의 결합이 지속적인 왕의 위기와 등가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오기일 제사가 그렇게 대규모의 범위 안에서 연례행사로 굳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대 소지왕과 다음 왕인 지철로왕이 순탄하게 왕위를 수수하지 않은 역사적 상황은 이같은 유추를 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수승과 궁주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Ⅲ장에서 구체화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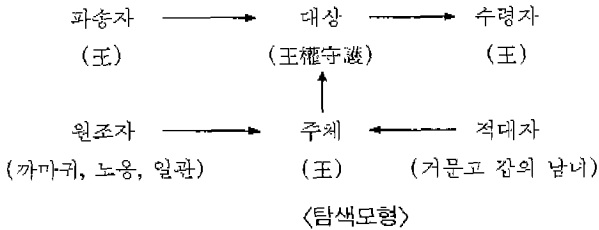
〈사금갑〉이야기는 이렇게 Ⅰ·Ⅱ·Ⅲ 세 개의 삽화로 연결되어 있다. 삽화Ⅰ에서 이야기의 발단이 왕의 행차로 시작되듯 삽화Ⅲ까지 이야기의 주체는 王으로 일관한다.

왕이 행차하는 과정과 징후의 병치, 그리고 징후에 대한 왕과 日官의 엇갈린 해석, 日官의 관독에 따른 왕의 대응행위, 왕의 대응행위의 거국적 확대, 즉 왕의 위기와 관련된 不淨을 지속적으로 씻어내고자 하는 正月 제사의례의 창조, 이와 같은 일련의 전개가 사금갑의 서사구조이다.

그러면 서사전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기능 요소들의 연합과정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삽화Ⅰ에서 등장하는 까마귀와 노옹은 징후를 이끌어가는 기능항들이다. 그들은 이야기의 주체인 王의 신변을 위협하는 적대자를 日官과 함께 王 앞

에 노출시키는 원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문고잡의 남녀는 원조자들의 탐색의 결과 드러난 적대자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하위의 탐색과정을 거쳐 이야기의 주체인 왕이 이 이야기 속에서 궁극적으로 찾아 헤매는 이야기의 값은 어디에 두어져 있는가. <사금잡>설화가 보여주는 탐색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까마귀와 노옹·日官으로 나타나는 원조자들은 왕 앞에 적대자를 찾아주는 탐색의 과정을 치러내고 왕은 원조자들의 협력 속에서 적대자들을 퇴치하고 王權을 수호해 나가는 과정이 이른바 왕의 탐색 행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까마귀와 노옹 日官의 기능과 거문고잡 남녀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본 장에서 미진했던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한다.

Ⅲ. 원조자 적대자 기능의 역사적 성격

1. 까마귀 노옹 日官

삼화 I에서 王이 天泉亭에 행차하는 것과 때 맞추어 나타난 쥐는 왕에게 까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라고 사람의 말로 당부한다. 까마귀는 말탄 병사를 이끌고 南쪽 叢村에 이르게 하고는 사라지는데, 말탄 병사는 그 곳에서 노옹과 만나게 된다. 결국 까마귀는 말탄 병사를 노옹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노옹은 수수께끼가 담긴 봉투를 전하는 행위를 통해 또한 日官의 출현을 필연적으로 이끌어낸다. 까마귀는 쥐와 말탄 병사와 돼지들의 조짐을 이끌어 노옹 앞에 이르게 하고, 노옹은 까마귀로부터 그 조짐을 이끄는 역할을 넘겨받고, 日官은 다시 노옹이 넘겨준 수수께끼의 조짐을 통어하는 최종적

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이 이끄는 조짐의 양상은 다양하게 진술되고 있지만 이들이 조짐의 한 가운데서 그것을 통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능적 측면은 삼자가 일치한다.

이들은 공히 왕의 행차와 더불어吉凶을 연출하고 판별하는 王의 연쇄적인 보호자들로 행동한다. 까마귀는 그의 활동무대가 말해주듯 天上의 공간에서, 노옹은 못 속에서 떠오른 그의 출현배경이 말해주듯 水中과 大地를 대변하는 地上의 공간에서, 日官은 인간세계 속의 초월적 인도자로서 王의 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왕의 행차를 이끌고 전도를 보살피는 조력자들, 하늘과 대지와 인간세계, 天 地 人 三界에 걸쳐 왕을 보호하는 神靈의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나라를 세우려고 이동할 때 이름에 까마귀 영상이 들어 있는 신하를 동행하였다. 그들의 이름은 烏引과 烏遼이다.

부여의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 모의를 꾸미자, 주몽의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말하기를,

“나라에서 너를 해치려 하니, 너 같은 재주와 경략을 가진 사람은 아무데고 멀리 떠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주몽이 이에 烏引·烏遼 등 두 사람과 함께 부여를 버리고 동남쪽으로 도망하였다.¹⁾

백제 시조 온조 역시 나라를 세우려고 이동할 때 烏干을 동행하였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드디어 烏干, 마려 등 열 명의 신하를 데리고 남쪽 지방으로 떠나니 백성들 중에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이리하여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서 살만한 곳을 살피다가 비류가 바닷가에서 살자고 하니 열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이 곳 강물 남쪽 땅은 북으로 한수를 떠났고 동으로 높은 산악에 의거하고 있으며 남으로 비옥한 들판이 바라보이고 서로는 큰 바다가 막혔습니다. 이러한 천연 요새로 된 좋은 땅이야 말로 얻기 어려운 것이니 여기에 도움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²⁾

1) [魏書] 권 100, 고구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 1 에는 烏伊, 摩離, 陝父 등 3인으로 기술되어 있다.

2)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 1.

신라왕의 신하 17 등급 가운데 제 15 등과 16 등의 관직명은 각기 大鳥와 小鳥이다.

신라의 관직은 17등급이 있다. 1등급은 伊弉干이니 촌귀하기가 중국의 相國과 같다. 다음은 伊尺干, 迎干, 破彌干, 大阿尺干, 阿尺干, 乙昔干, 沙口出干, 及伏干, 大奈摩干, 奈摩, 大舍, 小舍, 吉士, 大鳥, 小鳥, 造位의 차례이다.³⁾

시조왕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이동할 때 까마귀 이름이 든 신하를 대동하였다는 기록은 사금갑 이야기의 까마귀와 日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구려의 고분벽화⁴⁾들을 보면 태양 속에는 온통 三足鳥라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들어있다. 까마귀는 그들에게 태양의 精靈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렇다면 왕을 보좌하는 까마귀 신하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이름 그대로 그들은 해의 정령인 까마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해의 빛에 비유될만치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까마귀사람, 곧 햇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 日者와 日官의 존재를 떠올려 보는 것은 까마귀의 상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日官은 삼국시대에 천문관측과 점성을 담당한 관원을 가리킨다. 이 때에는 일식 월식 유성 혜성 등의 하늘변화와 우뢰·지진 등 땅의 변화가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믿고 점술에 의한 日官⁵⁾들의 갖가지 판단들을 믿어왔다. 고구려에서는 日者라 하였고 백제에서는 日官部라는 기관을 두어 천문과 점성을 담당하였다. 신라에도 日官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아있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日官 역시 그 예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까마귀는 바로 이러한 햇사람인 日者, 日官과 같은 햇사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햇사람 즉 日官의 다른 이름은 또한 巫堂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이르면 <사금갑> 이야기의 까마귀와 노용 日官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일련의 고리를 맺으며 드러나게 된다. 이들은 언제나 王의 爲政에 동행하는 인물들 즉, 왕의 呪術的 정치고문의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北史」권 94, 신라.

4) 천왕지신총 三足鳥, 쌍영총 三足鳥, 각저총 三足鳥.

5) 「삼국사기」, 李殷晟, 日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 18, p. 591.

다음 항목에서 거문고 갑 남녀의 성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세 사람의 呪術的 원조자가 동원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 주체의 심각한 상황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2. 거문고 갑 男女

못 속에서 나온 노옹이 경고해 준 거문고 갑 속의 남녀는 梵修僧과 窟主였다. 분수승은 내전에서 향을 사르는 일을 맡은 중이고 궁주는 왕의 嬪에 해당하는 여인이다. 법흥왕 15년(528),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내전 길이 승려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러면 분수승과 궁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자. II장에서 논의하였듯 분수승과 궁주가 노출되기 까지 이전의 조짐과 이후의 대응행위는 그들을 단지 私戀에 들든 단순한 두 남녀로 치부할 수 없도록 만든다. 까마귀와 노옹·일관이 이끄는 조짐과 해석이 단순히 불륜의 현장을 탐색하기 위한 前兆라고 하기에는 배경이 너무 거창하고 처벌 이후의 정월 보름 제사의례 역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국적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결국 I·III의 삽화는 사이에 든 거문고 갑의 남녀를 자동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위험세력으로 부상시켜 주고 있다. 그러면 분수승과 궁주의 연합이 국가적 위기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의 실마리는 분수승과 궁주의 만남을 개인에서 벗어나 그들이 속한 집단의 만남, 즉 불교세력과 궁중세력의 연합으로 확대해서 볼 때 읽어낼 수 있다. 「삼국유사」 興法 제3 阿道基羅⁶⁾ 조는 불교가 신라에 뿌리 내리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제19대 눌지왕 때 墨胡子가 고구려로 부터 一嶺郡에 이르니 그 고을 사람 毛禮가 집안에 땅굴 집을 짓고 도셔두었다.”

“제21대 비지왕 때에 阿道化상이 시종군 세 사람을 데리고 역시 毛禮의 집에 왔는데 그의 외모가 묵호자와 비슷하였다. 그는 수 년 동안 살다가 병도 없이 생애를 마쳤으며 시종군 세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살면서 불경과 계율을 강복하여

6) 「삼국유사」, 권 제3 興法 阿道基羅.

때때로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생겼다.

“미추왕 즉위 2년 阿道가 대궐로 인금을 찾아 뵈고 불교의 유포를 청하니 세상에서는 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의심을 가져 심지어 아도를 죽이려는 자까지 있으므로 그만 속림에 있는 毛祿(毛禮)의 집으로 도망하여 3년 동안 숨어 있었다. 미추왕이 세상을 떠나매 나라 사람들이 아도를 죽이고자 하였으므로 스님은 모록의 집으로 돌아와 자작으로 무덤을 만들고 문을 채운 채 자살하여 마칠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불교도 역시 없어지게 되었다.”

23대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목호자와 아도가 겪는 시련은 새로운 이념인 불교가 정착을 위해서 치러야 할 통과 의례적 진통을 보여준다. 어떤 새로운 이념이 정착하기까지 그것은 낯설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기독교 세력에 의해 배척당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그것이 왕권의 처세논리와 맞닿아 있는 범주에 속한다면 그 巔端性은 곧 王權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과 비처왕 대는 지증왕 한 대를 사이에 두고 있는 멀지않은 시기이다. 이 시기는 불교의 수용과정에서 볼 때 과도기라고 할 만한 시점이다. 여기에 이르면 까마귀와 노옹 일관이 등장하여 왕 앞에 분수승을 탐색해 낸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양자는 불교신앙과 재래신앙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왕은 굳건히 재래신앙과 연대하면서 분수승과 궁주의 연합세력에 맞서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왕과 대립하면서 이단적인 불교의 흐름과 연대하고 있는 宮主에게 눈을 돌려보자. 분수승이 한 사람의 개인 승려를 벗어나듯 궁주 역시 한 사람의 궁중 여인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상적 흐름인 불교와 더불어 왕과 대립할 수 있는 궁중 내의 위협세력은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인가? 비처왕과 다음왕, 지철로왕 사이에 빚어진 역사적인 관계는 이 문제를 해명하는데 단서가 된다.

신라 22대 智哲老王은 智大路, 智度路라고도 하고 시호가 智證이다. 지증왕은 「삼국유사」 紀異(지철로왕)조에서 庚辰年에 즉위하였다고 서술하고 註에서는 <或云辛巳>라 하여 500년(庚辰), 501년(辛巳) 양 쪽을 모두 전하고 있어서 즉위 연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비처(소지)왕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 22년(500) 11월에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22년(500), 9월에 捺己郡(지금의 榮州)에 행차하여 16세인 鵝花를 보고 다시 이 곳에 미행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⁷⁾도 전한다. 9월에 소녀를 만나 11월 죽기 전에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모순이다. 소지왕의 卅年을 「삼국사기」에서는 왕 22년 11월이라고 하나 왕의 사실적인 죽음은 지증왕 3년 3월이다. 이것은 왕의 죽음에 순장을 금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식 장례는 3년이 지난 지증왕 5년 4월에 喪服法을 반포하여 행하였다고 한다.⁸⁾

따라서 소지왕 22년 동짓달 왕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지증왕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 유배된 시기를 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비저왕은 왕권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은 왕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 〈소지왕조〉의 기록에서 왕이 벽화를 보러 미행한 집 노파와 나눈 대화에서도 왕의 죽음에 대한 불길한 암시가 들어있다. 왕이 노파에게 세상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평하느냐고 묻자 노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성인이라 하나 자신만은 홀로 의심한다. 왕은 龍인데 미복 차림으로 지방에 지주 행차하는 것은 용이 물고기옷을 입는 것과 같으니 어부에게 잡힐 수 있다.”⁹⁾

왕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암시를 이 예언적 설화의 형성과 전승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사금갑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과 일치하는 「삼국사기」 같은 왕의 10년조 기사, 역시 유념해 볼 만한 대목이 있다.

“소지왕 10년 봄 정월에 왕이 거처를 월성으로 옮기었다. 2월에 왕이 일선군으로 가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 늙은이들을 위문하고 곡식을 차등있게 주었다. 3월에 왕이 一鵝으로 부터 돌아오면서 지나오는 주와 군의 죄수들을 二死를 제외하고는 죄다 용서하였다. 여름 6월에 동양에서 눈 여섯 가지 거북을 헌납하였는데 배매기에 글자가 있었다.”¹⁰⁾

7) 「삼국사기」 권 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22년 9월조.

8) 鄭求福, “迎日冷水里新羅碑의 金石學的 考察”,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회편, 1990, 지식산업사, p. 43.

9) 「삼국사기」, 앞의 소지마립간조.

10) 「삼국사기」, 앞의 소지마립간조.

정월의 이사 대목은 <사금갑>에서 왕이 천천정에 행차하는 사건과 연결된다. 죄수들을 풀어준 대목에서 제외된 二死, 죽 두 죽을 죄는 거문고 갑 남녀의 죽음과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거북 배의 글씨는 또한 노용이 바친 글과 연결된다. 삼국사기의 사실적인 기록도 소지(비처)왕 10년이 왕에게 평온한 해가 아니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셈이다.

궁주로 대변되는 궁중내 세력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왕과 궁주의 사이가 친밀한 관계이듯 왕권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바로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물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처왕의 강력한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증왕이 비처왕과 육촌 사이라는 사실은 바로 이 점을 증거해 주고 있다.

결국 거문고 갑 속의 남녀는 재래신앙과 더불어 爲政의 논리를 펼쳐가는 왕권과 맞선 새로운 불교적 이념과 그것을 지지하는 궁중내 세력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IV. 이야기 구조의 呪術的 의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금갑 이야기의 구조가 呪術的 논리와 짝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왕의 행차와 더불어 전개된 정후의 배치,
전문적 해독자, 日官의 해석,
왕의 일차적인 대응행위,
나라 풍속으로 확장된 대응행위.

이렇게 정후 → 해석 → 反作用 → 不淨의 無化로 연결되는 이야기의 서사 구조는 不淨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것을 퇴치하고자 하는 呪術的 儀禮의 진행과정과 대응한다.

왕의 행차와 더불어 병치되어 있는 특수한 정후는 이 이야기가 일상인의 이해와는 다른 세계의 논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예이다. 따라서 그 특수한 기호는 日官이라는 한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 서만 해독될 수 있다.

그리고 王은 日官의 해독 결과에 따라 몸소 화살을 쏘는 親祭를 거행하고, 마침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祭儀의 절차를 확대시키면서 不淨을 씻어내고자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사금갑〉이야기의 상상력의 근거가 일상적인 인간들의 사고범주를 벗어나 日官類의 특수한 기호규범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셈이다. 그러면 삽화 I에 제시된 정후의 의미부터 살펴면서 이 이야기의 주술적 전개과정을 검토해 보자.

취와 말탄 병사 두 마리 돼지로 이어지는 동물들의 출현은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라는 五行 소속 12地支의 운행과 맥을 같이하는 정후이다. 이것은 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시간의 길흉과 함께 方位에 관하여 짐치던 풍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음양오행설이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다.

이 시기에 음양오행설이 전래된 흔적은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 벽화에서 나타나는 四神圖, 즉 玄武·朱雀·青龍·白虎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경우는 황룡사 구층탑의 心礎石 아래 積心石 사이 정동 거울에 양각된 四神¹¹⁾의 모습에서 전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고구려 유리왕 29년 「矛川이라는 내 위에서 黑蛙와 赤蛙가 떼를 지어 싸우다가 흑蛙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해석자가 이르되 흑은 북방의 색이니 북부여가 파멸할 징조이다.” 라는 「삼국사기」의 기사는 음양오행사상이 이 시기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록이다. 고구려 유리왕 29년은 한나라의 平帝 이후 王莽이 정권을 잡은 지 2년째 되는 해로 중국에서는 음양 사상이 백 년 이상 왕성하게 풍미할 때이다.¹²⁾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리왕 훨씬 이전부터 음양사상을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음양오행설을 가장 늦게 받아들인 신라의 경우, 태종무열왕 비에 나타나는 龜趺에 碑身을 세운 모습, 신문왕 2년(682)에 세운 感恩寺 址石의 태극도형, 그리고 〈사금갑〉 설화와 같은 삼국유사 설화를 통해서 이 사상의 확산을 짐작할 수 있다. 〈善德王知幾三事〉¹³⁾에서 선덕여왕이 보여준 色과 方位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 역시 음양오행론에 기초하고 있다.

11) 李熙德, “陰陽五行說”,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 17, p. 482.

12) 李恩奉, “陰陽論”,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 17, p. 479.

13) 『삼국유사』, 紀異 제 1, 善德王知幾三事.

제27대 왕 덕만의 시호는 선덕 여왕이니 성은 김씨요, 아버지는 진평왕이다. 정관 6년 임진(632)에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린지 16년 동안 그가 미리 알아 마친 일이 모두 세 가지나 있었다.

첫째는 당나라 태종이 붉은 빛, 자주 빛, 흰 빛 세 가지 빛깔의 모란 꽃 그림과 그 꽃씨 석 되를 그에게 보냈더니 왕이 꽃 그림을 보고 말하기를

이 꽃은 필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내 뜰에 심으라고 명령하고 그 꽃의 피고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 보았더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다.

당시의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어떻게 하여 모란꽃과 개구리 사건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하니 왕이 말하기를 꽃을 그리면서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당 나라 황제가 나의 혼자 지내는 것을 조롱하는 것이다. 개구리는 성 낸 풀을 하고 있어 군사의 모습이요, 육문이란 여자의 생식기이다. 여자는 음이요, 그 빛은 흰 빛이니 흰 빛은 곧 서쪽 方位다. 그러므로 군사가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에 들어가면 필경은 죽은 것이니 이로서 적병을 쉽게 잡을 줄 안 것이다 하였다. 이때야 여러 신하들은 모두 그의 가루한 지혜에 탄복하였다.

선덕여왕조는 別記를 붙여 여왕대에 첨성대를 세웠다는 기록을 첨부하고 있다. 이것은 음양오행론에 정통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왕의 치적과 더불어 천문관측과 음양오행 이론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만하다.

그러면 쥐와 말 돼지로 연결되는 <사금감>이야기의 前兆에 대해 다시 눈을 돌려 보자. 쥐와 말과 돼지의 干支는 시간으로 따지면 十二時의 첫째 시인 子時 한 밤의 정점에서, 일곱째 시인 午時 한 낮을 거쳐, 마지막 시인 亥時의 어둠으로 돌아가는 하루의 운행과정과 연결된다. 干支의 마디 하나를 하루로 삼아 풀이하면 열두 간지의 순행은 또한 십이 일을 주기로 돌아가는 순환의 구조로 연결된다. 이야기의 세 번째 삽화에서 첫 子日, 첫 午日, 첫 亥日에 금기하고 조심했다는 기사는 쥐와 말과 돼지의 출현이 곧 십이 일의 순환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해 준다.

쥐와 말과 돼지의 干支를 方位로 따지면 子와 亥는 北이고 午는 南쪽이다. 따라서 方位는 北을 기점으로 출발하여 南을 거쳐 다시 北으로 圓을 그리며 처음 출발했던 진원지로 회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干支의 변화를 시간과 方位로 함께 엮어 바라보면 우리는 삽화 I의 징후가 어둠의 北쪽에서 떠나 광명한 南쪽을 거쳐 다시 어둠의 北쪽인 원점으로 회귀하는 시간과 方

位の 순환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해의 녀이라고 할 수 있는 陽의 神靈, 까마귀는 두 마리 돼지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질은 어둠 앞에서 사라지고 가장 큰 어둠 속에서 陰의 神靈인 노옹이 까마귀의 역할을 위임 받으면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王의 행차와 병치하여 까마귀가 노옹에게 넘겨준 이러한 징후가 설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능하는 바는 무엇일까.

신라인들에게 두드러졌던 方位에 대한 信仰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 불움에 접근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의례인 무속신앙에서 方位는 중요한 상징체계로서의 기능을 보여준다. 무속신앙의 方位 개념은 수직적 공간구조로 天上, 地上, 地下로 나누어진다. 그 중 지상이 중심으로 그 중심은 무당이 달린 우주틀 위 아래로 뚫어 연결시키는 출구¹⁴⁾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현실적 공간 경험은 역시 지상 중심으로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문화가 이입되면서 方位神에 대한 祭儀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五方, 즉 東·西·南·北·中央을 神格으로 구체화 시키고 그것을 섬기는 對象으로 삼는 五方神將에 대한 제의가 그것이다.

五方神은 오방신장 오방장군이라고도 하며 巫俗에서 巫神으로 섬긴다. 巫神圖에 나타나는 오방신장은 붉은 복장에 靑龍偃月刀를 든 장군상이며 색깔, 기운, 방향, 동물 등으로 표현된다. 청룡은 동쪽의 木 기운을 맡은 太歲神을 상징한 짐승으로 중앙 왼쪽에 자리잡고, 주작은 남쪽으로 앞쪽에 오며, 백호는 서쪽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현무는 북쪽으로 중앙 뒤쪽에 위치하며 황룡은 중앙에 자리를 잡는다. 그에 따라 정색, 백색, 주색, 흑색은 동서남북을 황색은 중앙을 가리키게 된다.

五方神도 동의 靑帝, 남의 赤帝, 서의 白帝, 북의 黑帝, 중앙의 皇帝로 일컬어진다. 청룡과 백호는 좌청룡 우백호라 하여 풍수지리의 主山에서 쪼갰나간 왼쪽과 오른쪽의 산맥을 뜻하기도 한다.¹⁵⁾ 무속신앙에서 신격으로 섬겨지는 五方神將은 오색깃발로 지휘를 하는데 굿거리에서 제사의 한 절차로

14) 鄭鎮弘, “方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 9, pp. 263-266.

15) 河孝吉, 「한국민속대관」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2.
柳東植,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金憲宣, “方位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 9, p. 269.

설겨질 만큼 중요한 神性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라 제 49대 헌강왕¹⁶⁾이 南山神, 北岳神 등 五岳神의 춤을 따라 추며 제사를 드린 기록도 方位神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말엽 <巫堂來歷>에는 神將巨里에 五色旗로 오방신장을 지휘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方位神의 관념을 읽어낼 수 있다. 이 보다 조금 앞 시기 李滉의 『星湖僊說』에는 오방신의 명칭이 太昊 炎帝 少昊 蟪頊·黃帝로 명명되어 있다. 그리고 帝王들인 伏羲 神農 金天 高陽 軒轅들을 거기에 대응시키고 있는데 임금으로 있을 때 각기 오방의 정사를 맡았으므로 오방신으로 지칭된 이유가 이로부터 연유할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方位神의 모습은 다양하다. 중국에서 전래된 方位神의 경우를 보자. 漢나라 魏尚은 方位神을 기능적으로 분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동방의 신인 태호는 箴을 타고 規(동근 것)를 잡아 봄을 맡았고, 남방의 신 염제는 離를 타고 衡을 잡아 여름을 맡았으며, 서방의 신 소호는 兌를 타고 矩(모난 것)를 잡아 가을을 맡았고, 북방의 신 전욱은 坎을 타고 權을 잡아 겨울을 맡았으며, 중앙의 신 황제는 坤艮을 타고 繩(끈은 것)을 잡아 토를 맡았다고 한다. 黃龍은 곧 현원을 가리키는 데 이름을 黃螭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방위신 관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풍수지리나 무속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方位에 대한 민속신앙, 方位가 공간 분할을 통한 우주의 총체적 정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 연회는 탈춤의 춤사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楊州別山齋 중, 거드름식 춤의 사방치기 춤사위가 그 예이다. 이 춤은 춤꾼이 도포 자락 또는 장삼자락을 머리 위에 펴서 두 손으로 잡고 주춤거리며 돌아가는 춤인데 등남서북 또는 북서남동으로 한 방향씩 돌며 재배한다.¹⁷⁾

봉산 탈춤에서 첫 과장인 四上佐 대목에서 아무런 대사없이 사방을 돌아가며 추는 춤사위 역시 양주 별산대의 사방치기가 의도하는 方位神에 대한 제사와 맥을 같이 한다. 등장인물이 대화없이 춤사위로만 진행되는 고성오광대의 五方神將舞 도입부 역시 이러한 方位神에 대한 주술적 의례의 남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문화의 전래가 지속되면서 또 다른 方位神의 구체적인 수용은 十二

16) 「삼국유사」, 紀異 제 2, 處容郎望海寺.

17) 정진홍, 앞의 글

支神을 통해 나타난다. 중심을 제외한 사방을 좀 더 세분한 方位로서 십이지는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등의 동물로 상징화 되고 있다. 이 동물들은 각기 각 方位의 수호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라의 聖德王陵, 文聖王陵으로 전하는 掛陵, 김유신 장군묘 등의 板石에 십이지신상이 각 方位로 돌아가며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능을 총체적으로 방어하는 수호신적 기능을 각 方位神이 맡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이다.

이만큼 신라사회는 方位에 대한 祭와 祭場의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유념하면서 方位가 인간과 더불어 맺는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方位는 인간이 공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인식의 한 형태이다. 인간의 수직적인 모습은 앞을 고정시키고, 뒤를 상대적인 것으로 인지하게 하였다. 나아가 양 옆, 좌우 중심을 지각하게 되었다. 方位는 중심과의 관련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을 기본축으로 한 공간 지각은 위·아래라는 수직적 개념의 공간 인식도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方位는 중심에서부터 주위의 공간을 두루 살피며 공간 자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분할하고 구분하여 얻어진 공간 인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간 지각의 형태와 구분된다. 산이나 바다와 같은 실제적인 공간 경험은 넓다 좁다라고 하는 지각적 공간으로 인지되는 데 비해 方位로서 경험되는 공간은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方位는 기하학적 의미의 공간이면서,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철학적인 의미를 띠기도 한다. 전자가 실용적 효용성을 추구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전자를 方位의 실제로 수용하면서 존재론적 의미 부여를 통한 새로운 공간의 질서를 추구한다.¹⁸⁾

인간은 무한하고 미지에 찬 허공 속에서 공간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方位는 이러한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의 혼돈을 의미있는 질서로 구조화 시켜 준다. 方位로 인하여 인간은 자기 자리, 곧 중심으로 회귀할 수 있으며 자기로부터 비롯하는 모든 자기 확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공간 안

18) 정진홍, 앞의 글.

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실존을 지닐 적합성을 규정하는 의도적 행위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方位는 신화·주술적 공간인식, 즉 종교문화의 가치지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전후좌우 중심상하, 동서남북 중심상하는 분할된 공간을 의미하면서 분할된 공간에 대한 일정한 존재론적 지향까지도 함축하고 있다. 특정 方位를 지향한다는 것은 공간에 대한 신성화, 공간을 통한 신성 현현에 대한 체현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위와 종교 문화의 관계는 방위가 종교문화의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통해서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이 일은 곧 方位信仰의 형태를 살피는 일로 연결된다.

고고학의 발굴결과에 따르면 구석기인들의 시체는 동쪽을 향하여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¹⁹⁾ 매장 의례가 이렇게 특정한 方位를 지향하고 있는 사례는 그들의 삶과 밀착된 종교문화의 方位 신앙을 보여준다. 동쪽은 태양이 출발하는 기점이다. 동쪽이 이렇게 태양의 운행과 관련한 상징적 方位로 이해될 수 있다면 영생을 희구한 그들의 의도는 저절로 파악된다.

이슬람의 전통에 의하면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카아바신전이다. 이 신전은 북극성을 마주 향하고 있어서 신성한 곳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 곳은 頂上이고 중심이며, 기도할 때 향해야 할 方位가 된다. 기도의 방향이 신전을 향한다는 것은 삶 속에 분명한 지향점을 설정하는 일이 된다. 北向의 상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삶과 세계의 질서화이다.

유대·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는 해돋는 쪽, 동방이 언제나 정면이다. 해가 지는 곳인 서방은 후면이다. 그에 따라 동방향은 세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정립하는 방향을 상징한다.

불교에서는 이상향의 방향이 西方이다. 天上, 天樂 등 수직적 공간 개념이 드러나지만 상하의 수직적 공간 분할 개념과는 다른 평면적 분할로서의 서방이 극락의 위치로 서술되고 있다.

힌두교 전승신화 마하바라타에 나타나는 낙원 울단월은 북방에 있다.²⁰⁾ 북방이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道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두성경배는 도가의 중요한 실천 의례의 하나였고, 그 神殿이라 할 수 있는 昭格冢의 위치 또한 북쪽에 있다.

19) 정진홍, 앞의 글.

20) 정진홍, 위의 글.

중국문화는 方位에 대한 종교적 상징성을 가장 풍부히 지니고 있는 문화의 전형이다. <卜辭>를 보면 上帝는 方神을 거느리고 다시 方神은 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향지향적인 風神을 거느린다. 이것이 四方風神思想이다. 이렇게 상징화된 사방 풍신사상은 방신에 대한 제사 뿐 아니라 왕권의 강하나 治世原理를 세우는 근거로도 작용한다. 方位가 공간 분할의 수단을 벗어나 우주의 질서화를 위한 근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方位가 공간 인식의 한 형태이면서 그것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으면서부터는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는 기본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까지 살펴내려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사금감>의 징후를 떠올려 보자. 왕의 행차와 더불어 나타난 쥐와 말 패지는 이러한 方位 신앙의 여러 형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삽화 Ⅲ에서 정월 첫 子日, 첫 午日, 첫 亥日에 근신했다는 기사는 동물들의 출현이 시간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方位 역시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시간과 계절 역시 方位와 대응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나치지 않는다. 시간과 方位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 내기는 어렵다. 신라사회에 끼쳐져 있는 方位信仰의 사례들은 동물들의 징후가 方位神性에 대한 믿음의 체제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쥐와 말과 패지로 나타나는 十二支神은 궁극적으로 方位神과 관련된 時間神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해 있어서 方位에 대한 신앙은 구체적인 것으로 체험되기 어렵다.

그러나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時間神과 方位神의 존재는 인간들에게 자기 존재의 근거를 확인시켜 주는 지각의 한틀이 된다. 던져진 존재로서 지니는 인간의 맹목성이 시간과 方位의 구획에 의해 비로소 질서를 회복할 배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이러한 시간과 方位에 神格을 부여하고 신앙하였다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 心性의 한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우주를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자기 내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쥐와 말과 돼지로 나타난 징후의 의미를 마무리 하도록 하자. 동물들은 12方位와 시간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 神性的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삶의 현실성, 즉 吉凶禍福을 方位와 時間과의 관련을 통해서 체계화하려는 신앙의 체계가 여기에서 엿보인다. 따라서 삽화 I의 징후는 결국 方位와 시간신에 대한 제사의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절차가 王의 행차와 병치하여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러한 제사는 왕권의 통치원리와 긴밀하게 연관된 주술행위라는 것을 아울러 짐작하게 된다.

이제 삽화 II에 제시된 日官의 해독 행위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관은 III장에서 논의하였듯 자연과 인간이 주는 기호를 특수한 解號體系에 의해서 풀이하는 전문해독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까마귀에서 노옹·일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유신앙의 체계적 해석자인 巫堂들이라고 할 수 있다.

까마귀는 쥐와 말과 돼지의 징후를 노옹 앞에까지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기능한다. 노옹은 그 징후를 수수께끼 글월로 재창조하고 日官에게 넘겨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日官은 적층된 두 가지의 징후를 특수한 기호규범에 의해 吉凶으로 판별해 내는 기능을 보여준다.

삽화 I에 제시된 쥐와 말과 돼지의 징후는 인간들이 자신의 존재를 질서화하기 위해 세운 方位와 時間에 대한 인식의 틀이다. 그러나 그 형이상학적 의미가 범속한 인간들의 세계 속까지 보편적으로 체험될 만치 일상적인 진리는 아니다.

이 기호는 단지 日官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음양오행이론의 체계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고유신앙의 복합양상을 발견할 수 있게된다. 일관은 왕의 주술적 정치적 고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日官은 왕권의 수호자이다. 따라서 日官은 王의 治世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모든 주술적 방법을 동원하고 王의 전도를 판별하는 占卜行爲를 시행하는 과정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왕이 스스로 화살을 쏘는 대응행위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왕이 親히 나서서 실시하는 親祭의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 부여의 제천 의식인 迎鼓에서 국왕이 親히 親祭를 거행했다는 기록²¹⁾을 유념해보자. 영

21) 「三國志」, 魏書, 東夷傳, 夫餘.

고는 집단적 농경의례의 하나로 일종의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띠는 제사이다.

“殷歷正月에 하늘에 제사하고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이것을 이름하여 迎鼓라고 한다. 이 때에는 형벌과 옥사를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殷歷 正月은 夏歷을 따른 것으로 음력 12월을 의미한다. 이 때 국왕은 祭場에 친히 나서서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제사를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東盟이나 동예의 舞天, 삼한의 十月祭 역시 영고와 같은 맥락에서 국왕의 親祭로서의 의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五岳神의 춤을 따라 춘 御舞의 재현 역시 제사에 王이 친히 참여하고 있는 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삼화 I에서 동물들의 출현이 왕의 행차와 관련하여 일어났듯이 삼화 II에서 몸소 화살을 쏘아 부정을 제거하는 왕의 모습에서 이 이야기가 王權의 수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祭儀를 배경으로 태어난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때 가장 강력하게 대두한 不淨거리는 거문고 잡속의 남녀로 표상되는 불교세력과 궁중내 세력의 연합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삼화 II의 왕의 親祭는 부정을 씻어내고자 하는 씻김 의례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마지막 삼화 III의 烏忌日 제사 과정의 의미를 살펴보자. 왕의 친제 이후 나라 풍속에서는 정월, 첫 子日, 첫 午日, 첫 亥일에 백성들이 근신하고 보름날에 烏忌日 찰밥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정월 첫 子·午·亥일은 삼화 I에 제시된 쥐와 말과 돼지의 출현과 대응되는 日時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12일 주기의 시간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기호는 아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 12支神 동물들의 출현은 12方位에 위치한 神性에 대한 믿음의 체계까지 함의하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子·午·亥일의 근신과 보름의 제사는 또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보름은 한달의 중심이다. 이것은 시간에 근거한 개념이지만 시간은 또한 방위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어서 중심은 공간의 원점으로서의 상징도 함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월은 1년 12달, 신년의 벽두로 그 해의 기점이 되는 달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월은 일년을 새로이 창

조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보름은 정월의 중심이면서 나아가 1년의 중심을 폭넓게 상징한다.

첫 子·午·亥일은 이러한 正月의 중심에 이르기 전, 보름 앞에 위치하면서 보름을 예비하는 첫, 중간, 마지막 매듭이 묶여지는 날들이다. 12일 순환 주기의 처음과, 정 중간, 끝을 의미하는 이 날들은 보름에 이르기 전 보름을 예비하는 예비 중심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름 큰 제사에 이르기 전, 근심하며 대비하는 작은 제사날의 예비적 금기를 보여주는 날들이라는 말이다.

정월은 1년 12달의吉凶을 앞서서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사람 개인은 물론 王權의 治世와 관련하여 더 더욱 소홀할 수 없는 달이다. 고대 군주들은 자연의 時意에 맞는 제사를 거행함으로써 하늘과 인간사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月令²²⁾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月令은 군주가 일반 백성들에게 내린 월중행사표로서 매달마다 그 달에 알맞은 時令을 거행하지 않으면 天時에 영향을 주어 禍變이 생긴다고²³⁾ 여긴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실천의례로서 음양오행이론과 깊이 밀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화 Ⅲ에서 우리는 나라의 부정을 씻어 내고 1년을 선행적으로 창조해내고자 하는 백성들의 정월 실천의례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왕의 행차와 병치된 징후를 日官이 해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왕이 親祭를 거행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그 제사에 동참, 금기함으로써 신년 벽두에 치르는 정월굿은 그 모든 절차를 마감하게 되는 셈이다.

보름날 치르는 烏忌日 제사에 나오는 烏忌日은 우리말 향찰로 풀이하면 <오구>²⁴⁾와 상통하는 말이다. 삼화 Ⅱ에서 王은 분명하게 드러난 부정의 대상인 거문고 갑 속의 남녀를 퇴치한다. 그에 따라 왕의 친제는 하늘에 감사하는 祭天儀武과 달리 不淨을 씻어내고자 치르는 씻김굿의 성격을 보여준다.

오늘날 ‘오구굿’은 죽음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가시는 儀禮로 정형화되어 있다. 죽음의 부정은 일정기간 시간을 거치면 정화되는 속성이 있지만 이

22) 『禮記』 月令.

23) 李熙德 “陰陽五行說”,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 17, p. 482.

24) 『삼국유사』, 李民樹 역, 서울, 범우사, 1986.

어두운 그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오구굿을 치른다. 죽은 영혼을 이승과 분리시켜 저승이나 극락으로 보내 빨리 안주시키려는 의도 속에는 죽은 자 자신 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기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월, 신년 벽두, 첫 달, 가장 중심에 있는 보름에 백성들이 근신하며 치르는 烏忌日 제사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부정을 씻어내려는 오구굿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사금갑〉설화가 보여주는 비밀상적인 상징들의 연합을 해명하면서 이야기의 형성원리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사금갑〉설화는 세 삽화의 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서사전개의 유기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것은 첫째, 왕의 행차와 병치된 동물들이 드러내는 징후, 둘째, 징후에 대한 日官의 해독과 王의 대응행위, 셋째, 이 때부터 비롯된 정월 보름날 백성들의 烏忌日 祭儀로 각기 분석되었다. 그 과정에서 까마귀와 노용 日官이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行爲項이라는 사실, 즉 왕의 원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존재물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규명되었다.

그리고 거문고갑 속의 두 男女는 그들이 속한 집단 세력 즉, 불교세력과 궁중내 세력의 연합인 왕의 적대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비처왕과 다음왕인 지철로왕 사이에 얽힌 역사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이렇게 까마귀와 노용 日官의 역할과, 거문고갑 남녀의 의미가 드러나면서 〈사금갑〉이야기는 그 상상력의 근거가 일상인의 범주를 벗어나 日官類의 呪術的 해석체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왕의 행차와 더불어 징후가 나타나고 그것을 日官이 点卜하고 王이 그 결과에 따라 親히 제사를 주관하고 나라 백성들이 또한 동참해서 제사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월굿의 절차와 대응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정월 보름에 烏忌日 찰밥제사를 드리는 유래에

대한 설명으로 집약되는 데 烏忌日은 오늘날 죽음의 부정을 씻어내는 不淨 씻기굿인 ‘오구굿’과 어원이 통하고 씻김 祭儀로서의 성격 또한 일치하는 공통의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라 <사금감>설화는 왕의 治世를 돕고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正月 儀禮의 절차를 반영하는 呪術的 구조로 전개되는 것이다. 正月은 신년의 벽두로 새해에 일어날 수 있는 不淨을 극복하고 새롭게 한 해를 창조할 수 있는 달이다. 正月이 함의하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유념하면 <사금감> 설화의 전개과정이 일년 열 두달의 조짐을 미리 점치고 先行的으로 열 두달을 창조하려는 적극적 呪術行爲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